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안달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안달다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안달다

완성된 이름

안달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안달다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뜻대로 되지 않아 몹시 안타깝고 마음이 죄어들다.

요약 연대표

표기

안달다

19세기	20세기	현재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뜻대로 되지 않아 몹시 안타깝고 마음이 죄어들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4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6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안달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몹시 안타깝고 마음이 죄어든다.

☞ 안달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안달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안달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안달-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안달다
19세기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종

안달-



안달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안달다’는 19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말의 구성과 어원

‘안달-’은 명사 ‘안’과 안타깝거나 조마조마하여 마음이 몹시 조급해지다를 뜻하는 동사 어간 ‘달-’이 결합한 것이다. 《국한회어》에서 ‘안달다’에 대응되는 한자어로 ‘內熱(내열)’을 제시하였는데, ‘內’가 ‘안’에 대응되고 ‘熱’이 ‘달다’에 대응된다.



문헌 속의 안달다

전체 용례 4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안달-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안달-

출처 1896 국한회어 곤:204

용례 01

66 문헌 용례

안달다 [內熟. 熱中].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안달-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안달-

출처 1930 동아일보 11월 24일 4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자네는 썩 날 안달아 죽게 할 작정인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0 삼천리 제4호 40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처치하지 못하여 안달다가, 겨우 순실이를 주어 버린 구두의, 참으로 처치할 곳이 이제야 생겨난 것이었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4 동아일보 9월 4일 조간 3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그는 빙긋이 웃었다. 멀리 낙조를 바라보며 옥점의 안다라 덤비던 장면이 떠올랐던 것이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안달다의 보충 설명

1896년에 만들어진 《국한회어》에 ‘안달다’가 나타나는데 비슷한 시기인 1897년에 간행된 게일 편 《한영자전》에는 ‘안달하다’가 있고 한자를 ‘熱中(열중)’으로 제시하였다. 《국한회어》에서도 ‘안달다’에 ‘熱中’을 한자로 제시하였다. (글자가 분명하지 않아 ‘熱中(숙중)’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한영자전》에서는 ‘발광하다’에서 ‘안달하다’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19세기에 ‘안달다’와 ‘안달하다’가 비슷한 뜻으로 둘 다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안달다’에서 ‘안달’이 나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안달다’에서 ‘안달’이 나오고 다시 여기에 ‘하다’가 붙으면서 ‘안달다’와 비슷한 뜻의 ‘안달하다’가 쓰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안달다 관련 낱말

안달, 안달하다



- [안달](#)명사속을 태우면서 조금하게 굶.관련된 말의 뜻기초사전에서 읽기 [기](#)



- [안달하다](#)동사속을 태우면서 조금하게 굶다.관련된 말의 뜻기초사전에서 읽기 [기](#)

뜻풀이: 국립국어원 한국어기초사전 · 자료 출처와 이용 안내

안달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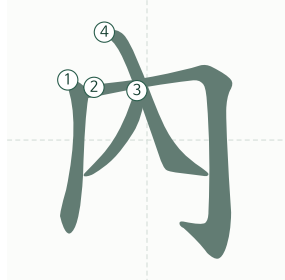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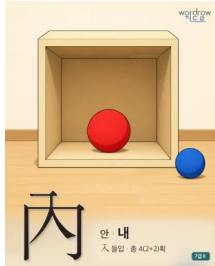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안달다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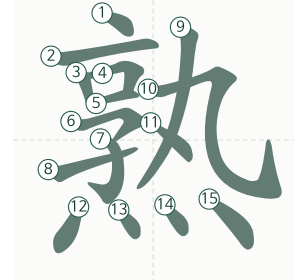
뜻·음 안 내
총 4획 · 부수 入



hanja.wordrow.kr/한자/內/

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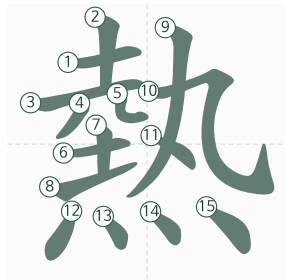
뜻·음 익을 숙
총 15획 · 부수 火



hanja.wordrow.kr/한자/熟/

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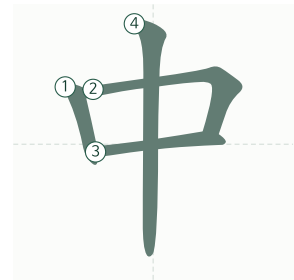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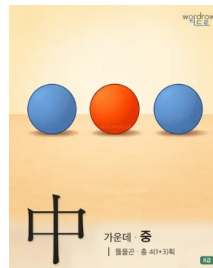
뜻·음 더울 열
총 15획 · 부수 火



hanja.wordrow.kr/한자/熱/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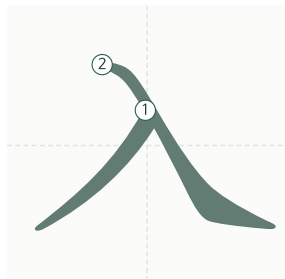
뜻·음 가운데 중
총 4획 · 부수 丨



hanja.wordrow.kr/한자/中/

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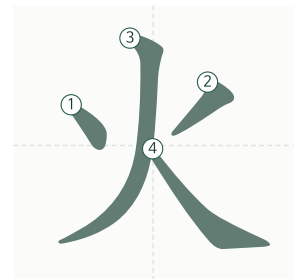
뜻·음 들 입
총 2획 · 부수 入



hanja.wordrow.kr/한자/入/

火

뜻·음 불 화
총 4획 · 부수 火



hanja.wordrow.kr/한자/火/